

## 12. 「파주 심학산」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파주 심학산」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파주 심학산」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추진경과
  - '16.5~12월 유형별 전국 명승자원 조사(일출·낙조)
  - '17. 3. 15. 명승자원 조사결과 알림 및 지정 신청 안내(문화재청→지자체)
  - '17. 11. 3.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신청서 제출(\*\*\*→문화재청)
  - '18. 1. 18. 지정현지조사 실시(\*\*\*, \*\* 문화재위원, \*\*\* 前문화재위원)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파주 심학산(한문: 坡州 尋鶴山, 영문: Sim Hak San, PaJu)
- 지정종별 : 명승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산42번지
- 문화재구역 : 1,100㎡(1필지)
- 문화재관리단체 : \*\*\* \*\*
- 지정근거 : 파주 심학산의 낙조 경관은 '저명한 경관의 전망지점'임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3. 가에 해당됨)
- 지정가치
  - 파주 심학산(193.5m)은 높은 산의 정상에서 바라보는 웅장함이나 경이로움과는 다른 비교적 낮고 완만한 야산에서 파주, 일산, 김포 등 드넓은 평야지대의

- 일출, 낙조, 달풍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명승적 가치가 높음.
- 특히 조선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1681, 숙종7년~1763, 영조 39년)은 「양요당 兩樂堂, 도성의 서교西郊<현재의 파주 교하 탄현 등>의 팔경」 중 7경으로 심학산의 아름다움을 ‘산 기운이 산정까지 올라와 수천과 똑같은 빛이므로 심악의 맑은 이내<심학청람, 深岳晴嵐>’라 하여 자연경치를 칭송함.

**라. 검토의견(\*\*\*\*\*)**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1 국가지정문화재(명승)지정기준 중 저명한 경관(일출·낙조)의 전망지점에 해당되며, 우리청의 ‘2016년 유형별 전국 명승자원조사’ 결과 남·북한 일출낙조 자원 123개소 중 다음과 같은 지정 선정 기준에 부합된 우수자원 8개소 중 하나임.

\* 선정기준 :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곳을 선정하고자  
 ①~④기준항목을 공통적으로 해당된 경우에 한하여 선정함.

① 진경산수화,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조선시대 고문헌, 고서화, 고지도 등에서 일출낙조·달풍경에 관한 자료가 있을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 추천 관광지 및 전국 10대 명소 ③ 지자체 주관 3,000명 이상 일반인 참석 행사 ④ 사진작가가 추천하는 사진촬영지로 유명한 곳

- 파주 심학산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인근에 마을이 위치하여 주민들이 가장 친근하게 일출, 일몰을 접할 수 있는 장소이며 그 명맥을 유지하여 파주시에서 일출 일몰 등의 행사를 열어 그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파주, 교하, 일산, 김포 등 넓은 충적평야에 홀로 우뚝선 독립구릉지이므로 360도 다채로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천연기념물인 한강재두루미와 개리 등 겨울철새가 겨울철 해질녘에 붉은 노을과 함께 비상하는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명승적 가치는 높으나, 지정예정구역 내 산재된 인공시설물의 등이 명승 지정 및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전문가 조사의견**

(\*\*\*, \*\* 문화재위원, \*\*\* 前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1.17.)

**I. 주요 지정사항 검토**

1. 문화재 종류 : 명승
2. 문화재 명칭

구분	국문	한문	영문
신청(안)	파주 심학산	坡州 尋鶴山	Sim Hak San, PaJu
검토(안)	파주 심학산	坡州 尋鶴山	Simhaksan Mountain, PaJu

- 문화재 지정취지와 가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문화재 명칭에 일출을 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다만 영문에도 ‘2014년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용례집’의 표기 방식대로 문화재 특성의 일반 명사를 붙이고 뒤에 지명을 표기함.
  - \* 사례 : 진안 마이산 (Maisan Mountain, Jinan)
- 또한 조선시대까지의 고증자료에는 ‘심악산’으로 표기되었으나 1933년 6월 1일과 9일 신문보도자료 이후 ‘심학산’으로 표기되어 현재 행정지명으로 ‘심학산’이 표기되어 사용되고 있음.
- 심악산은 경기도 5악(송악, 감악, 심악, 북악, 관악) 중 하나이며, 고려시대 심악현(深岳縣)의 마을이름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파주문화원, 1997>
- 이에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지침(시행 2016.6.9, 문화재청예규 제167호)」 제4조(지정명칭 표기 예외사항) ‘고증에 의한 지역명이 아니더라도 그 명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역 명칭은 그대로 살려 사용할 수 있다.’와 제5조(지정명칭 변경)의 ‘이미 지정 되어 널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가급적 현행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심학산’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 파주시<관리단체>에서 제출한 ‘심악산’ 명칭 변경관련 자료

구분	자료명	내 용	시 기
지리지 및 관찬사료	신증동국여지승람권11 경기(京畿), 「교하현(交河縣)」	【산천】 심악산(深岳山): 현 남쪽 21리 지점에 있고 심악현이다. 심악강(深岳江): 심악산서쪽에 있다.	1530년
	여지도서(輿地圖書)권상 경기도(京畿道), 「교하(交河)」	심악산(深岳山): 관아의 남쪽 15리에 있다. 산줄기는 모두 고양(高陽)의 고봉산(高峯山)에서 뻗어 나온다.	1757~1765
	이금익(李肯翊), 연려실기술별집 권16 지리지(地理典故),	심악(深岳)은 폐현이다. 옛날의 보신향(寶新鄉)이다	1776이전
	김정호(金正浩), 대동지지(大東地志) 경기도(京畿道), 「교하(交河)」	【산수(山水)] 심악산(深岳山)[서남쪽으로 12리에 있다.	1861~1866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권28	(공민왕) 15년 5월, 왜(倭)가 심악현(深嶽縣)을 약탈했다.	1452년
	태조실록, 태조 3년(1394) 9월 28일 1번째 기사	심악(深岳)교하(交河)-석천(石泉)의 세 향(鄉)을 합하여 교하 감무(交河監務)라 하고...	1431년
	세종실록 권148, 地理志 京畿 楊州都護府 交河縣	교하현과석천향을원평부(原平府)에 붙이고, 심악현(深嶽縣)을 고양현에 붙이었다가...	1454년
고지도	해동지도(海東地圖)· 교하군	심악산(深岳山), 심악강(深岳江)	1750년대
	여지도(輿地圖)· 교하군	심악산(深岳山)	18세기 중반
	조선지도· 교하(奎16030), 팔도군현지도· 교하현	심악(深岳)	1760년경
	지승(地乘)· 교하현	심악산(深岳山)	18세기 후반
	광여도(廣輿圖)	심악산(深岳山)	19세기 초
	1872년 지방도· 교하군지도(交河郡地圖)	심악산(深岳山)	1872년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 경기도, 충청도	심악(深岳)	1767년경

	팔도분도(八道分圖)·기보(畿輔)	심악(深岳)	1767년경
	여지도(輿地圖)	심악(深岳)	18세기 말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경기도	심악(深岳)	1780년경
	동역도(東域圖)·경기도, 충청도	심악(深岳)	1800년 이후
	대동여지도 13첩(5열)	심악(深岳)	19세기 중반
	대동방여전도(大東方輿全圖)	심악(深岳)	1861년 이후
	경기읍지(京畿邑誌) 3권 「교하군읍지(交河郡邑誌)」	심악산(深岳山), 심악강(深岳江)	
	조선지리지자료·교하군	심악산(深岳山), 심악강(深岳江)	1911년
	조선총독부 조선오만분일지형도(朝鮮五萬分一地形圖)'통진' 도엽	심악산(深岳山)	1890~1900년대
	1956년 삼능공업사재출판한국지형도 1권 '통진' 도엽	심악산(深岳山)	1956년
	장유(張維) 「양화도(楊花渡)」 시	“눈보라 어두워 <b>심악</b> 은 아득한데, 모래밭 길에 행주에 이어졌구나 [雪暗迷深嶽, 沙長接幸州]”	1587~1638
	허목(許穆) 「무술주행기(戊戌舟行記)」	<b>심악(深嶽)</b> 과 봉성(鳳城)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곳을 가리키며 그곳이 '해구(海口)'라 하였다.	1658
	이춘영(李春英)이 읊은 김정리의 호장10경	衆峯南北爭相向, 여러 봉우리 남북으로 다투어 서로 향하는데 <b>深岳</b> 峯巍丈人行. 심악산 높고 높으니 장인(丈人)의 항렬이라. 地勢清高雪先到, 지세가 맑고 높아 눈 먼저 내렸다가 靄色凌凌千萬丈. 개인 빛 넘름하여 천만 길이로구나. 幽人睡起開戶看, 은자가 자다 일어나 문을 열고 바라보니 樹杪風多吹鶴鬣. 나무 끝에 바람 일어 학창의를 필력인다. [右深岳曉雪] [심악산의 새벽 눈]	1563~1606
시문	구음(具崙) 「양한당팔경(養閒堂八景)」	[深岳暮雨] [심악산의 저녁비] 細霖埋山落景沉 부슬비가 산을 묻고 석양빛이 가라앉자 暝禽投沒亂雲深 새들은 동지 찾고 구름만 자욱하네. 最看水墨依微畫 수묵으로 담담하게 묘사한 그림인 듯 妙在層巒半面陰 절묘한 건 반쯤 숨은 겹겹의 산봉우리	1614~1683
	권집경(權執經)의 석탄정사(石灘精舍) 팔경시	纔籠深岳頭 아지랑이가 겨우 심악산 머리를 둘러더니 忽開深岳面 홀연 심악산 얼굴이 열리는구나. 誰識隔江人 누가 알리오, 강 건너 있는 사람이 朝朝捲簾見 아침마다 발을 걷고 바라보는 것을. [右深岳朝靄] [심악산의 아침 안개]	1633~1709
	이익(李瀾) 「양요당팔경(兩樂堂八景)」	雨後遙峯露幾層 비 온 뒤 먼 산은 몇 층이나 드러났고 靑葱山氣佛頭凝 질푸른 산기운이 모여 부처 머리 같아라 依微非霧非煙裏 희미한 것이 안개도 아니요 연기도 아닌데 白鳥橫飛別色增 흰 새가 가로질러 나니 유달리 희게 보인다 [深岳晴嵐] [심악의 맑은 날 남기]	1681~1763

신문 기사	『동아일보』 1933년 6월 1일과 9일 기사	<b>심학산(尋鶴山)</b>	1933년
	『동아일보』 1965년 7월 6일 기사	<b>심학산(尋鶴山)</b>	1965년
	『동아일보』 1965년 7월 7일 기사	<b>심악산(深岳山)</b>	1965년
	『경향신문』 1981년 7월 24일 기사	<b>심학산(尋鶴山)</b>	1981년
	『경향신문』 1994년 1월 14일 기사	<b>심학산(尋鶴山)</b>	1994년

※ 심학산에서 심학산으로의 개명은 일제의 지명 왜곡(창지개명)의 결과로 추정됨. 당시 일제가 한양도성에서 중시되었던 명산의 이름을 변조했던 바, 천자지지가 날 명당자리이자 삼각산과 도봉산의 기운이 모아진 산이었던 심학산의 기운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임. 이후 심학산의 유래에 대하여 숙종 때 궁중에서 기르던 학 두 마리가 도망을 쳤는데 심학산에 이르러 학을 찾았다 하여 심학산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나, 이는 일제 강점기 이후 심학산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창작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음.

### 3. 입지 환경 및 역사문화환경

#### 1) 입지 환경

- 심학산(해발 193.5m)은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서패동, 동패동에 걸쳐 있는 산이다. 지리적으로는 파주시 서남단에 위치에 있다. 심학산의 서편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으며 이 물길은 서동리 일대에서 임진강과 합류되어 서해로 빠져나가며 휴전선이 인접해 있다.
- 심학산의 형세는 동서방향으로 길죽한 타원형을 특징으로 하고, 서쪽이 정상부로동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특히 심학산 주위로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사방을 조망하기에 좋고, 낮은 구릉과 평야가 펼쳐져 있으므로 오래전부터 산 주위로 취락과 농지가 형성되어 있다.
- 산의 서편에는 우리나라 출판의 요람으로 평가되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그 너머로 한강변을 따라 제방을 쌓은 남북방향의 ‘자유로’가 길게 뻗어 있다.
- 파주시 산남동 42번지를 제외한 대부분은 사유지이며, 심학산은 현재 산림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총 연장 6.8km의 둘레길 및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다..

#### 2) 지형 및 지질 현황

- 심학산은 해발 193.5m이며, 한강하류 주변에 충적평야(해발 20m이내)에 능선이 동서로 발달된 독립구릉지의 정상에 해당됨. 상봉은 거대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사면에 거력군(巨礫群), 일명 ‘너덜경’이 존재한다.
- 심학산 일대는 선캄브리아시대의 경기변성암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자원연구소, 1997, 1:50,000 통진 지질조사보고서).

- 심학산은 주로 편마암류와 편암류로 구성된 변성암류를 관입한 고기의 화강암이 변성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조립질 화강편마암으로 이루어졌다.
- 심학산에는 화강편마암으로 이루어진 거력들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이 거력들은 풍화, 침식작용이 상당히 진행되어 발달한 핵석(核石; core stone)으로 판단되며, 원마도는 양호 내지 아각(亞角)으로 나타난다.
- 낮은 평지는 신생대 제4기의 충적층이며, 한강변을 따라 범람원이 발달함.
- 심학산의 정상부에는 매우 커다란 바위들이 찰처럼 솟은 토르(tor)지형이 나타나며, 서패리 돌곳이 부근에는 직경 1~5m의 거력군이 분포한다.
- 거력군이 분포하는 지표의 경사는 매우 완만하며, 일부 거력들은 기반암과 연결되어 있다. 대부분 불규칙한 절리를 따라 갈라져 모가 난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경관적 특징으로 이어지고 있다. 거력군 주변의 구릉지에도 토르지형이 나타나며, 토르의 하단에는 구릉지의 토양과 유사한 적색토가 나타난다.
- 심학산 일대는 심층의 화학적 풍화작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암석이 풍화에 약해진 곳이나 절리가 잘 발달한 곳에서는 깊은 곳까지 풍화된 점이 확인되나, 강암이거나 절리의 발달이 미약한 곳은 풍화대가 얇은 편이다. 이러한 풍화산물은 지금 적색토 지형으로 나타난다.
- 지반이 용기하거나 빙하기에 해수면이 내려감으로써 침식기준면이 하강하여 풍화물질이 제거되어 있다. 비교적 풍화를 적게 받은 부분은 산지로 남아 있다. 절리면을 따라 풍화된 물질이 제거되면서 산정에는 거력들이 탑모양으로 솟은 토르지형이 나타나고, 풍화를 많이 받은 부분은 평탄한 저위 삭박면을 이루고 있다. 산지 주변부에는 구상풍화된 거력들과 절리면을 따라 풍화가 이루어진 기준면이 하강함으로써 삭박면이 개석되어 있다. 산지 주변부에 노출된 기반암과 거력들은 균을 형성하고 있고, 개석된 삭박면은 구릉지를 이루고 있다. 구릉지에는 적색토가 분포하여 밭농사에 이용되고 있으며, 소하천 주변에 퇴적된 소규모의 충적지는 농지로 개간되어 이용되고 있다.
- 심학산 산기슭과 줄기능선을 따라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30여개의 크고 작은 고인돌의 재질은 화강암 계통이다. 이는 심학산 일대의 기반암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채석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 3) 식물 현황

- 심학산의 식생은 낙엽활엽수림이 우점하는 2차림으로서 소나무림이 참나무림으로 천연갱신 과정에 있는 수림으로 판단된다.
- 심학산의 식생경관을 구성하는 식물군락은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등의 낙엽성 참나무류(*Quercus*)로서 이들 군락은 향(向)과 고도에 관계없이 비교적 고루 우점하고 있다. 신갈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수고 10~15m, 근원경(R) 25~35cm 정도의 크기로 대부분 수관량 확보를 위해, 부피 성장 보다는 길이생장이 고도화된 상태로 성장하고 있다.

- 심학산 교목상층에서는 신갈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우점하며 상수리나무는 저지대에, 신갈나무는 중산간지대 이상 지대에서 고루 분포하고 있다. 교목 하층에는 생강나무, 때죽나무, 산벚나무, 물푸레나무가, 관목층에서는 국수나무와 진달래의 우점성이 우월하며 그밖에 괴불나무, 작살나무, 개웃나무, 짚레꽃, 개암나무, 인동덩굴, 산딸기 등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
- 참나무림 내부에는 밤나무, 소나무, 팔배나무, 리기다소나무 등이 소산(疏散)하여 혼생 분포하며, 산 정상을 중심으로 서북부사면과 주능선 상의 헬기장에서 약천사를 거쳐 심학산 산림공원 일대에 이르는 북사면능선 일대에는 불규칙하지만 대상(帶狀)으로 비교적 우량한 소나무개체가 섞인 군락이 발견된다.
- 산 정상 부근과 조성된 전망대 인근에는 산림경관 유지 측면에서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잣나무 대경목과 구상나무, 단풍나무 등이 관찰되며, 삼나무와 잣나무 식재림이 작은 면적이지만 모자이크 상으로 분포하며 하부 임연부(林緣部)에는 비교적 영급(齡級)이 높은 아까시나무가 간헐적으로 분포한다.

#### 4) 동물 현황

- 심학산 일대에서 발견되는 특이 동물상은 천연기념물 제250호 재두루미도래지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 임진강과 공릉천, 문산천 등 커다란 강과 하천 주변은 천혜의 야생 조류의 서식처였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하산남습지를 중심으로 한강 하구 지역에는 2500마리 내외의 재두루미가 도래했었다. 그러나 자유로의 건설과 대대적인 도시개발로 인해 현재는 예전의 재두루미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다만 오두산 아래의 습지부터 산남습지에 이르는 갈대밭에서 해마다 10마리 내외의 재두루미가 휴식을 취하면서 먹이를 먹는 광경 정도를 볼 수 있을 뿐이다.

#### 5) 문화재 현황

- 심학산 내외 지역에는 국가, 경기도, 파주시, 지정문화재는 없다.
- 비지정문화재는 2건으로 정상의 ‘심학산보루’, ‘산남리(동) 지석묘군’이 있다.

## 6) 경관 분석

### ○ 한강 낙조기관(落照奇觀) 중 으뜸

- 심학산에서는 일출과 낙조 모두를 볼 수 있다. 삼각산[북한산]에서 떠오르는 일출과 운해는 장관이며, 해발 192m에 불과한 야산에 불과하지만 붉은 빛의 한강과 임진강과 함께 김포의 봉성산의 부드러운 능선의 자태가 아름다우며 수려한 강화의 명산들이 배경으로 서있다. 이러한 해질녘 낙조 경관은 수채화 같은 아름다운 화경(畵景)을 이룬다.

### ○ 심학산은 한강 하류의 최고의 조망점이자 최고의 경관대상

- 조망 명소의 요건으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은 시점의 전이가 쌍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이다. 문헌에서는 주로 멀리 떨어진 시점에서 우뚝 솟은 심학산을 감상하는 것과 심학산 내부의 다양한 경관을 팔경으로 노래하였다. ‘심학의 맑은 날 남기[深岳晴嵐]’, ‘심학의 아침 안개[深岳朝靄]’, ‘심학의 저녁비[深岳暮雨]’, ‘심학의 새벽 눈[深岳曉雪]’ 등은 기상환경에 따라 다양한 경관을 볼 수 있는데서 기인하였을 것이다.

### ○ 심학산 내부의 우수경관자원

- 심학산 곳곳에는 수십 기의 고인돌, 기이한 암봉과 거력군의 암석이 뒤엉킨 산악경관의 특징도 보여준다. 개중에는 이름난 바위들도 많은데, 수투바위, 신선바위, 마당바위, 범바위, 투구바위, 장사바위, 굴바위 등 수십 개의 특징적인 기암들이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고 있는 등 산 내부에도 경관미가 돋보이는 자원이 산재해 있다.

### ○ 매혹적인 산정(山頂) 부감경 : 산, 강, 도시의 풍경이 조화된 명쾌한 파노라믹 전경관

- 심학산은 심학산(深岳山)이라는 본래의 이름이 말해주듯 공릉천 남북으로 펼쳐진 드넓은 청교(靑郊)에서 홀로 우뚝 솟아 악산(岳山)의 정취를 전해준다.
- 넓은 평야와 낮은 구릉지로 형성된 교하 지역의 서편에 우뚝 솟은 심학산은 주변에 높은 고개가 없어 지형적 방해 없이 탁 트인 조망이 가능한 곳이다. 무엇보다 북한산, 도봉산, 고봉산, 동성산, 봉선산 등 일대의 산세를 두루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 정상에서 360도 파노라믹 경관을 볼 수 있으며 시계가 좋은 날은 50~70km 이상 떨어진 원경적 요소까지 다채로운 지표물의 상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 북쪽으로 북한 개풍군 및 개성 송악산, 천마산, 멸악산 등의 형태가 아련히 보이고 통일전망대와 파주출판단지가 강변에 뚜렷이 식별된다. 동쪽으로 교하신도시와 일산의 아파트 단지가 손에 잡힐 듯이 나타나며, 파주 감악산, 동두천 소요산, 포천 왕방산 및 도봉산, 삼각산[북한산]이 웅태를 드러낸다.



남쪽에는 멀리 관악산과 수리산까지 조망되며, 청계산에 이르면 희미하게 윤곽이 나타난다. 서쪽은 원경으로 강화도의 산들이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즉, 남쪽 길상산부터 마니산, 진강산, 혈구산, 고려산이 선명하며, 김포의 문수산과 애기봉 전망대는 바로 이웃처럼 명쾌하게 나타나며, 건너편의 북한 개풍군 일대의 험벗은 산야도 잘 보인다. 물론 이러한 사방의 산악 전경관은 정상의 '심학정'에서 세세히 읽혀지는 묘미라 할 수 있다.

- 수도권 제일의 전망대: 서울, 경기, 개성이 함께 보이는 장대한 조망
  - 수도권의 전망대로 이름난 곳은 (1)남한산성 연주봉, (2)파주 심학산, (3)파주 통일전망대, (4)파주 도라전망대, (5)오산 독산성, (6)영종도 백운산, (7)시흥 옥구도 낙조대, (8)강화 고려산 낙조대, (9)시흥 갯골전망대 등 9개소가 있다.
  - 이 중에서 파주시는 3개소의 전망대를 보유하고 있다. 통일전망대의 경우 북녘 땅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 지점의 풍경이 일품이긴 하지만 동쪽과 남쪽의 시야가 지형과 전망시설에 막혀있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도라전망대의 경우, 개성공단, 송악산, 천마산을 비롯하여 북한 마을 및 판문점도 지척에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조망되는 대상이 북쪽에 치중되어 안보전망대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심학산 정상은 194m의 고도가 무색할 정도로 사방의 전경이 훤히 드러나는데, 과거 군사요충지로 중시되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 7) 경관 조망점 분석

### ○ 조망점 지형정보

구분	조망점	좌표	고도	조망각	가시각
조망점1	심학정	N 37° 42'24.66" / E 126° 41'44.04"	200.6m(정자2층)	부감	약 300°
조망점2	낙조전망대	N 37° 42'24.07" / E 126° 41'36.39"	135.3m	부감	약 150°

### ○ 조망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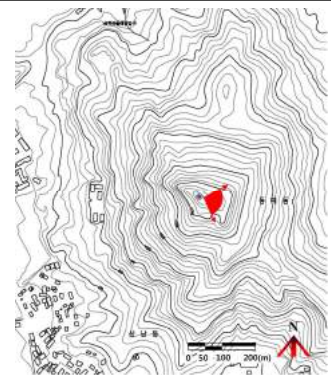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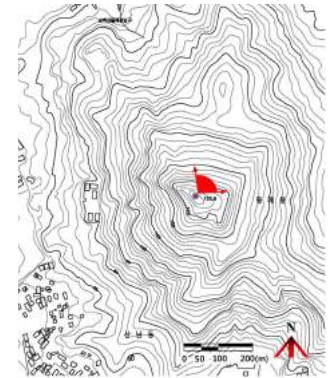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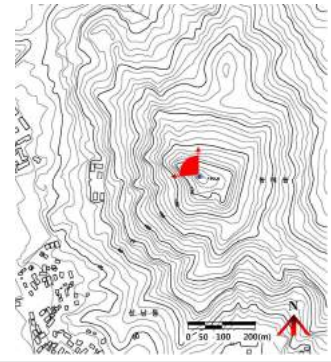
구분	조망점	감상형태	시점장 형태	지형구분	조망유형	경관유형	경관구도
조망점1	심학정	일출, 낙조	산정 전망대	산악형, 산지전망형	지점조망	파노라믹 전경관	중첩형
조망점2	낙조전망대	낙조	산사면 전망대	산악형, 산지전망형	지점조망	파노라믹 전경관	중첩형

### ○ 조망 특성 분석

- 조망점 1 : 정상 심학정


<p><b>대상장 특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 근경~중경역에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자유로와 넓은 산남습지가 나타남. 한강 맞은편 봉성산의 어울림이 아름다움. 유려한 능선의 형태가 돋보이는 봉성산은 조망에 있어 주경적 요소로 나타남. 원경으로 김포시와 강화군의 명산이 중첩되어 나타남. 남서방향의 계양산, 가현산에서 시작하여 마니산(강화), 진강산(강화), 고려산(강화), 일우유기봉산(김포), 문수산성(김포), 애기봉(김포)로 이어짐</li> <li>• 북: 자유로, 교하, 탄현 일대, 오두산 통일전망대, 검단산이 명료하게 조망됨. 기상조건이 좋다면 북한 개풍군에 위치한 만수산(39km), 개성 송악산(35.8km), 군장산(1836km), 천마산(42km), 국사봉(43km), 보봉산(38km) 등이 연속되는 산세의 흐름에서 각 산을 식별할 수 있음. 한강과 임진강·예성강의 합류지점이 조망됨</li> <li>• 동: 북서쪽의 파평산(26km), 감악산(34km)부터 계명산(21km), 도봉산(28km), 노고산(21km), 고봉산(8.5km), 북한산(25km) 주능선 등이 연속적으로 나타남. 교하, 운정 뒤로 팔일봉, 앵무봉, 박달산, 황룡산 등 야산이 나타남. 일출지점은 도봉산에서 북한산 주능선 사이임</li> </ul>		
<p><b>시 거리에 따른 경 관 요소 (서 쪽)</b></p>	<p><b>근경역(500m)</b></p> <p>파주출판단지, 산남습지, 자유로, 재두루미도래지</p>	<p><b>중경역(2km)</b></p> <p>봉성산, 김포군 일대</p>	<p><b>원경역(5km)</b></p> <p>계양산, 마니산, 진강산, 고려산, 문수산, 송마산, 일우유기봉산, 애기봉 등이 층을 이루며 조망됨</p>
<p><b>스카이라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동형의 연속적인 산세가 관찰됨</li> </ul>		
<p><b>경 관 구 도 및 경 관 의 매 력 · 저 해 요 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학산은 193.6m에 지나지 않지만 예로부터 청교로 불려왔던 평야 한복판에 솟아있어 일망무제로 사방을 아우르는 경관을 보여줌. 사방 25km 내의 일대의 산세를 두루 감상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고 있으며 산, 강, 도로 등과 어우러진 색다른 도시의 경관을 볼 수 있음</li> <li>• 심학정은 여기에 높이를 더한 부감경을 즐기게 해주며,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기능을 겸하고 있음. 잘 정돈된 정상부의 조경 및 주변에 산재한 거석·고인돌의 기경(奇景)이 조망되는 기관(奇觀)과 어울려 시점장의 매력요인으로 작용함</li> <li>• 가장 경관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방향인 서쪽에는 천연기념물 재두루미 도래지가 넓게 분포해 있고, 심약강으로 불렸던 한강 일대 및 봉성산의 아름다운 자태가 조화되어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냄. 여기에 낙조의 붉은 색조가 더해지면 자연과 도시를 물들이게 되어 색다른 정감을 일으켜 줌</li> </ul>		
<p><b>시각적 구심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점장 외부에서 조망과 감상이 이루어지지 않음</li> </ul>		

<p><b>대상장 사진</b></p>	<p><b>가시범위</b></p>
	



- 조망점 2 : 낙조 전망대

대상장 사진	가시 범위

<p><b>대상장 특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조전망대는 정상에서 약 40~50m 내려온 고도 135~145m의 위치로, 심학정에서 가시되는 서쪽 방향과 동일한 경관대상을 조망할 수 있음</li> <li>• 장면경관은 조망점1과 유사하나 출판도시와 산남습지의 조망이 보다 뚜렷하게 부각됨. 특히 조망점1에서 수목에 의해 가시되지 않던 영역이 시원하게 뿔려 있어 장애물 없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li> <li>• 시각적으로 연속되는 지형의 조망이 두드러진 가운데, 북서쪽으로 일우유기봉산, 애기봉을 비롯하여 마근포리로 합류해 들어가는 한강의 물줄기까지 잘 조망됨</li> <li>• 원경에 조망되는 산세의 흐름은 조망점1과 같이 마니산, 진강산, 고려산, 문수산이 유려한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각 산의 최고봉이 비슷한 높이로 나타남</li> <li>• 낙조전망대는 조망점1에서 서쪽으로 불과 170m 정도 이격된 직선거리에 위치하지만, 한강과 봉성산이 훨씬 가깝게 조망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음</li> </ul>		
<p><b>시 거리에 따른 경 관 요소</b></p>	<p><b>근경역(500m)</b></p> <p>파주출판단지, 산남습지, 자유로, 재두루미도래지</p>	<p><b>중경역(2km)</b></p> <p>봉성산, 김포군 일대</p>	<p><b>원경역(5km)</b></p> <p>마니산, 진강산, 고려산, 문수산, 승마산, 일우유기봉산, 애기봉</p>
<p><b>스 카 이 라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동형의 연속적인 산세가 관찰됨</li> </ul>		
<p><b>경 관 구 도 및 경 관 의 매력 · 저 해 요 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강과 산남습지가 어우러진 모습이 아름다우며, 여기에 봉성산 자체의 개채미가 더하여 감상의 묘미가 되고 있음</li> <li>• 시점장의 분위기가 대체로 한적하며, 배후에 위치한 암곡, 소나무 및 적소에 위치한 벤치가 운치를 더해줌</li> </ul>		
<p><b>시 각 적 구 심 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점장 외부에서 조망과 감상이 이루어지지 않음</li> </ul>		
<p><b>파 노 라 마 전 경</b></p>			

#### 4. 연혁 · 유래 및 특징

##### 1) 역사 · 문화적 가치

###### ○ 심학산의 역사적 층위

- 심학산은 천 년 이상 우리 선조가 삶을 영위해온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장소이다. 삼국시대에는 보신향이라 지명이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심악현의 고을이었다. 고려시대 심악현 고을 이름은 심학산의 본래 이름이던 심악산에서 비롯된 것이며, 심악산 앞을 흐르는 한강을 심악강이라 불렀으며, 이담이란 인물은 심악군이란 봉호를 하사받았다. 이렇듯 심학산은 한강 하류를 끼고 파주, 고양, 행주, 교하, 통진 등의 평야에 우뚝 솟아있어 일대의 상징적 역할을 했다.
- 고려시대 심악현은 임진강과 한강으로 갈리는 중심부에 위치에 있어 서해의

조수가 유입되었다. 심악현의 물길을 통해서 고려의 수도인 송도(松都: 지금의 개성)를 진입할 수 있었고, 공민왕 15년 왜구가 심악현을 약탈했다는 기록이 있다.

- 조선시대 이후 심악현이 폐지되며 더 이상 행정구역상으로 기능하지 못했지만, 조선시대 명사와 문인들은 도성 근교의 공간으로 인식해 전장을 가꾸거나 별서를 경영하며 새로운 유림들의 문화가 펼쳐지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조선 전기 대표적인 명사로 김제신(金悌臣)과 신자건(愼自健)이 있었고, 조선 중기에는 송익필(宋翼弼), 이춘영(李春英) 등이 별서를 경영했다. 조선 후기에는 송익조(宋翊朝)의 병사(丙舍)가 있었는데, 윤증(尹拯)도 별서를 계획했던 기록이 나타난다. 전해지는 명사들의 이름만 살펴봐도 결코 위상이 작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나, 선인들이 이주한 뒤 새로운 사람들의 거주지가 들어서고 근현대의 개발사업 등이 더해지며 이전의 자취가 상당 부분 사라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자취는 문헌자료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 그 가치를 실감케 하고, 선현들의 일부 문화공간의 경우는 기록이 자세하기 때문에 현장조사와 복원사업을 진행하여 자취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조선시대 명산으로 명사들의 기록에 전하니 심학산의 명승적 가치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2) 역사·경관적 가치

○ 심악산은 경관향유 8경 및 10경의 집경(集景) 대상이었다.

- 이춘영(李春英)이 읊은 김정리의 호장10경 : 김정리 호장의 10경은 가을 포구의 저녁 조수[秋浦晚潮], 봄 강의 어지러운 돛대[春江亂帆], 필운산의 아침 아지랑이[彌雲朝靄], 성거산의 저녁연기[聖居暮煙], 동성의 밤비[童城夜雨] 심악의 새벽 눈[深岳曉雪], 오단의 개인 달[梧壇霽月], 행정의 온화한 바람[杏亭和風], 귀봉의 반조[龜峯返照], 안현의 꺼져가는 봉화[鞍峴殘烽]이다. 이춘영은 이 시의 6수에서 김정리의 호장이 한강의 서호(西湖)에 자리하고 있음을 적시했는데, 여기에 심악산의 존재를 더한 사실에서 한강 하류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기능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 구음(具崙)의 「양한당팔경(養閒堂八景)」 : 구음의 『명곡집』 권2에 「양한당팔경(養閒堂八景)」이란 작품이 전한다. 양한당이 있는 원림에서 조망되는 8경의 풍광을 읊은 것인데 양한당의 정확한 위치 및 소유주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할 수 없어 보다 자세한 고증이 요구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양한당의 경관에서 심악산의 존재가 확인되는 점인데, 당대 최고의 명산 가운데 하나

로 꿈히던 북한산과 대구를 이루어 읊었다는 사실에 주목된다. 심악산이 지닌 위상을 한 눈에 보여주는 기록이다. 구름이 양한당에서 꿈은 여덟 가지 경관은 삼각산의 아침 이내[三角朝嵐], 심악산의 저녁 비[深岳暮雨], 오두산 낙조[鰲頭落照], 봉상으로 돌아가는 배[鳳翔歸帆], 평사에 내려앉은 기러기[平沙落鴈], 해문의 조수 소리[海門潮聲], 아침 연기의 목축 피리[烟朝牧笛], 달 뜬 밤의 어부 노래[月夜漁歌]이다. 여기서 삼각산은 지금의 북한산을 말하고, 봉상은 김포의 봉성산을 가리킨다.

- 이서우(李瑞雨)가 읊은 권집경(權執經)의 석탄정사(石灘精舍) 팔경시 : 이서우가 꿈은 권집경의 석탄정사의 팔경은 다음과 같다. 조포의 고기잡이 등불[鳥浦漁火], 봉성의 바람 머금은 돛대[鳳城風帆], 심악산의 아침 아지랑이[深岳朝靄], 전류의 저녁연기[顛流暮烟], 대산의 봄꽃[大山春花], 소애의 대숲[小厓叢竹], 해석에 드리운 낚싯대[海石垂釣], 선암에 기댄 지팡이[仙巖倚杖]이다.
- 이익(李瀾)이 꿈은 양요당(兩樂堂)의 팔경 : 이익이 꿈은 양요당의 팔경은 다음과 같다. 순서대로 들자면, 오두산의 개인 달[鰲頭霽月], 봉상의 바람 머금은 돛대[鳳翔風帆], 송리산의 저녁 봉화[松裏夕烽], 검단사의 새벽 종소리[黔丹曉鍾], 청교에서 완상하는 농사일 완상[靑郊玩稼], 해포에서 구경하는 고기잡이[蟹浦觀漁], 심악산의 개인 이내[深岳晴嵐], 해천의 낙조[海天落照]이다.

### 3) 전설 및 유래 가치

- 조선 숙종 때 왕이 귀히 여기던 학 두 마리가 궁궐에서 도망 나왔을 때 이곳에서 학을 찾았다 하여 학을 찾은 산이란 뜻의 심학(尋鶴)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저명한(일출·낙조)의 전망지점

- 일출, 낙조, 달풍경과 한강변을 따라 조성된 자유로의 야경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조망지점임.
- 삼각산[북한산]에서 떠오르는 일출과 운해의 장관을 조망할 수 있고, 해질녘 붉은 노을과 함께 한강의 겨울 철새가 비상하는 장면을 원경에서 조망할 수 있는 특징적 공간임.
-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심학산은 마을을 끼고 발달되어 있어 지역민의 일출 등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장소로 활용되어져 왔고, 현재는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과주시에서 매년 지자체 일출·일몰의 행사를 시행하는 등 그 역사적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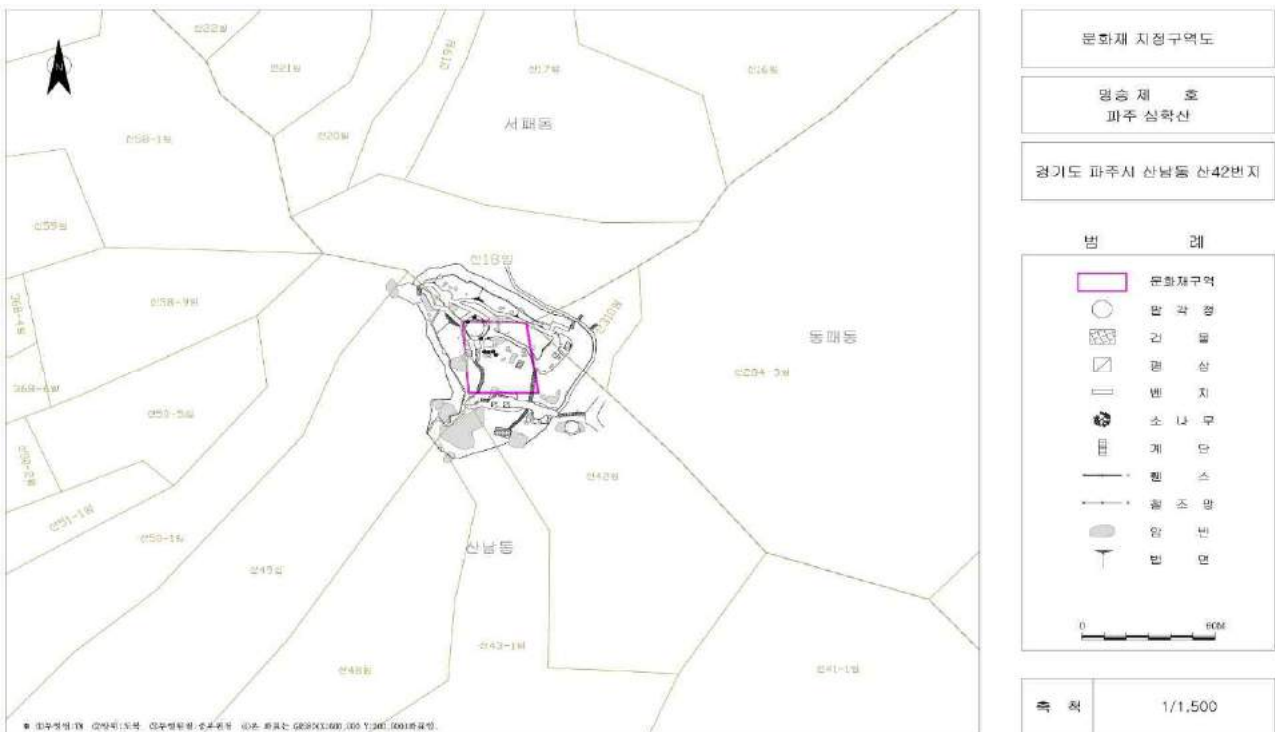
##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청에서 시행한 ‘2016년 유형별 전국 명승자원조사’결과의 문화재지정구역(13,884m<sup>2</sup>)에서 2,884m<sup>2</sup>를 축소하여 산 정상부에 한하여 1,100m<sup>2</sup>(1필지)를 요청한 사항임.
- \*\*\*, \*\*\*<관리단체>를 거쳐 신청된 문화재지정구역은 파주시 산남동 산 42번지 중 산 정상 일부만을 신청한 사항이나 신청 구역외에 낙조대, 수투바위, 거북바위, 매바위 등 경관자원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추후 사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문화재지정구역의 추가 확대가 필요함.
- 문화재지정예정구역 내 분포되어 있는 데크정비 및 통신탑, 군사용 울타리 등 철거를 통해 자연명승경관 보존의 노력이 필요함
- 명승 지정 <\*\*\*·\*\*\*>신청 및 검토 문화재 지적구역 토지조서 : 1,100m<sup>2</sup>

연번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지적면적	지정면적	
1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산42	임	13,884	1,100	***

- 명승 지정 <\*\*\*·\*\*\*> 신청 지적도 : 1,100m<sup>2</sup>

- 보호물 및 보호구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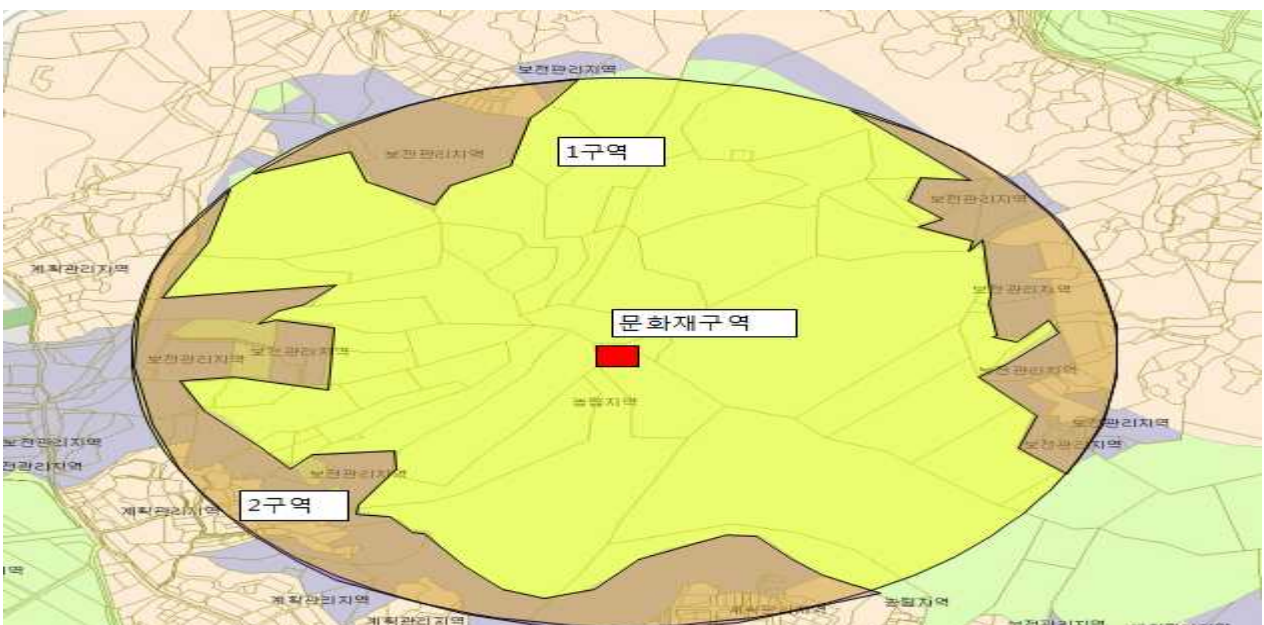


## II. 보호관리사항 검토

### 1.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문화재지정구역 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구역 설정은 보존 관리에 적정하리라 판단됨.
- 다만, 산 정상부 아래 군사용 병커 등 경관저해물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통해 명승지로서 적합한 산책로 조성 등이 필요함.
- 「과주 심학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신청 (안)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과주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Ⅲ. 종합의견

####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1.17.)

- 파주 심학산은 비교적 낮고 완만한 경사의 야산이지만 사방으로 전경이 열려 있는 전경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정상에서는 파주, 일산, 김포 등 드넓은 평야 지대의 일출, 낙조, 달풍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명승적 가치가 있음.
- 심학산 곳곳에는 암봉과 거력군의 암석이 뒤엉킨 산악경관의 특징도 보여주는데, 수투바위, 신선바위, 투구바위 등 특징적인 암석들이 산재하여 산 내부에서 경관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문헌에서는 주로 멀리 떨어진 시점에서 우뚝 솟은 심학산을 감상하는 것과 고문서 및 고서화에는 심학산(옛 지명) 내부의 다양한 경관을 팔경으로 노래하였음.
- 그러나 경관의 특이함이 미흡하고, 파주출판문화단지, 일산 방면으로 인위적인 건물이 과다하게 조망되고 있어 경관적 가치를 낮추고 있음. 또한 정상부에는 사유지가 많으며, 통신시설, 군사용 울타리 등 과다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명승으로 지정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1.17.)

- 심학산은 비교적 낮고 완만한 야산에서 조망되는 평야지대의 일출과 낙조 감상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수평적 파노라믹 경관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규모나 주변에 기 조성된 인공적 경관은 다소 미흡하므로 심학산이 지닌 역사문화적 배경, 평야지대에서의 일출명소라는 지형적 특이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前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1.17.)

- 심학산은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하나인 한강과 임진강 및 김포, 강화 방향의 지형과 어우러진 낙조를 비롯하여 도봉산, 북한산 능선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전망할 수 있다는 특이성과 차별성을 갖추고 있음, 넓은 평원에 솟은 도심지구릉지에서 사방을 전망할 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통하여 변화하는 평원(경작지; 주로 논)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 250호 한강 해류 재두루미 도래지가 서쪽에 인접하여 있고, 한강 하구 지역에 개리 등 겨울 철새가 서식하고 있어 겨울철(11월~3월) 해 질 무렵 비상하는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함.
- 현지조사 시 짙은 미세먼지 농도로 일출과 낙조, 조망점(시점장) 및 조망영역(대상장)에 대한 명승적 가치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2016 전국 명승

자원 조사(일출, 낙조)'(문화재청) 보고서에서는 우수명승자원으로 평가되었고, 해안이 아닌 내륙에서의 하천 및 산지지형의 경관을 비롯하여 도심지에서의 일출과 낙조를 전망한다는 특이성, 차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바. 지자체 검토의견(\*\*\*\*\*, \*\*\*\*)

(\*\*\*<관리단체>검토의견 / 2018.1.22)

- 일제 강점기에 심학산에서 마을굿을 지냈다고 전해지며, 2000년부터 심학산 주변 마을인 동패동과 서패동, 산남동 마을에서 돌아가며 마을제사 및 해맞이 행사를 지내고 있고 2014년부터는 교하지역의 인구유입에 많아짐에 따라 해맞이 행사를 교하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지내고 있음. 제례행사는 마을주민 약 100여명, 해맞이 행사는 약 1,000여명이 참석하고 있어 역사적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음.



2015~2017년 심학산 둘레길 축제 포스터



2016년 심학산 풍년기원제

**(\*\*\* 검토의견 / 2017.11.3)**

- 심학산(193.5m)은 비교적 낮고 완만한 야산이나 주변에 평야지대(파주, 일산, 김포)로 인해 지형적 방해 요소가 없어 중첩된 산줄기, 유유히 흐르는 한강과 임진강의 강물 경관과 일출, 낙조, 달풍경 모두가 관찰되는 곳이며 특히 강물위로 붉게 물드는 낙조 경관이 특히 뛰어남.
- 급속한 산업화, 근대화로 우수한 자연 경관자원이 부족한 경기도에 남아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국가 명승 지정을 통하여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자 함.
- 경기도 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검토의견 / 2017.8.17.) : 조건부가결
  - 조건 : 군사 시설(참호, 철망) 철거 필요, 정자주변 경관 정비 및 수목제거 요구되며, 명칭(심학산, 심악산)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

**(\*\*\* 동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현지조사 의견 / 2017.8.3)**

- 심학산의 경관이 ‘명승’이 될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장애요인이 되어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심학산 정상에서 7~10m 아래에 빙 둘러 만들어진 참호와 철망으로 만든 펜스, 가건물로 만들어진 방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이는 소관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구하여 원상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정상에 흉물스럽게 세워져 경관을 해치고 있는 통신탑의 이전도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심악산이 곧 심학산이라 하는 문헌 고증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 경기도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8.3)**

- 심학산은 침활 혼효림으로 하계에는 숲이 울창하여 멀리서 산을 조망하면 푸른 강물에 인접하여 낮은 평야 지대에 초록의 아담한 봉우리가 우뚝 솟아있는 시원하고 유장한 장면을 보여주며, 인근 마을과 가까이 있어 생활권역으로 일출 및 일몰을 조망하기에 곳은 곳이며 매년 정월 초하루 해맞이 명소였다. 저구릉형 산지로 등산로와 둘레길을 따라 정상부 접근성이 우수한 반면 주변에 놓은 산이 없으므로 정상부에서 360도 전경관이 다채롭다.
- 고문헌(신증동국여지승람 등) 및 고지도(1872년 교하군도, 여지도 등)에는 심악산으로 표기되었기에 산의 적합한 명칭 재검토가 필요하며, 심학산 관련

성호 이익의 ‘양요당팔경’, 구봉송익필의 문집 여부를 조사하여 일출, 낙조  
관련한 옛 그림이나 시문 등 경관자원을 보완한다.

- 국가지정문화재(명승)관련하여 상기 의견을 토대로 조건부 지정의견을 제안한다. 심  
학산은 일출 낙조경관의 명소이며, 활용성은 확장적이다. 그럼에도 자연 산림경관 측  
면에서 과도한 인공적인 시설물을 정비하여 경승지로써 지정가치 보완이 필요하다.

#### 바. 의결사항

- 보류
  - 파주 심학산 정상부의 통신탑, 군사용 인공시설물 등을 정비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가결 1명, 조건부 가결 2명, 보류 3명, 부결 3명